

일하다 다치셨나요?

산재 신청, 첫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당신의 치료와 생계를 지킵니다.

정식 명칭은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신청이 승인되어야 **병원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월급(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누가 쓰나요?

다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 팁: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치료받는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세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신 접수해 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



승인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한 칸: '재해 발생 경위'

신청인 정보				연령	
	신청인 정보				
사립원 정보				사립원 정보	
재해 일시				재해사건 일시	
재해 일간	-	년	월		
출생일					
재해 발생 경위					
재해 일간	-	년	월	재해 일시	
재해 원					
재해 시간	-	년	월	재해 시간	
사립원				사립원 정보	



공단 직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쳤는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①: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친 경우

× 나쁜 예

일하다가 허리를 다침.

너무 모호하고 정보가 없어
상황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좋은 예

2024년 1월 15일 14시경,
A공장 2라인에서 20kg 부품을
들어 올려 선반에 적재하던 중,
허리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껴 주저앉음.

 날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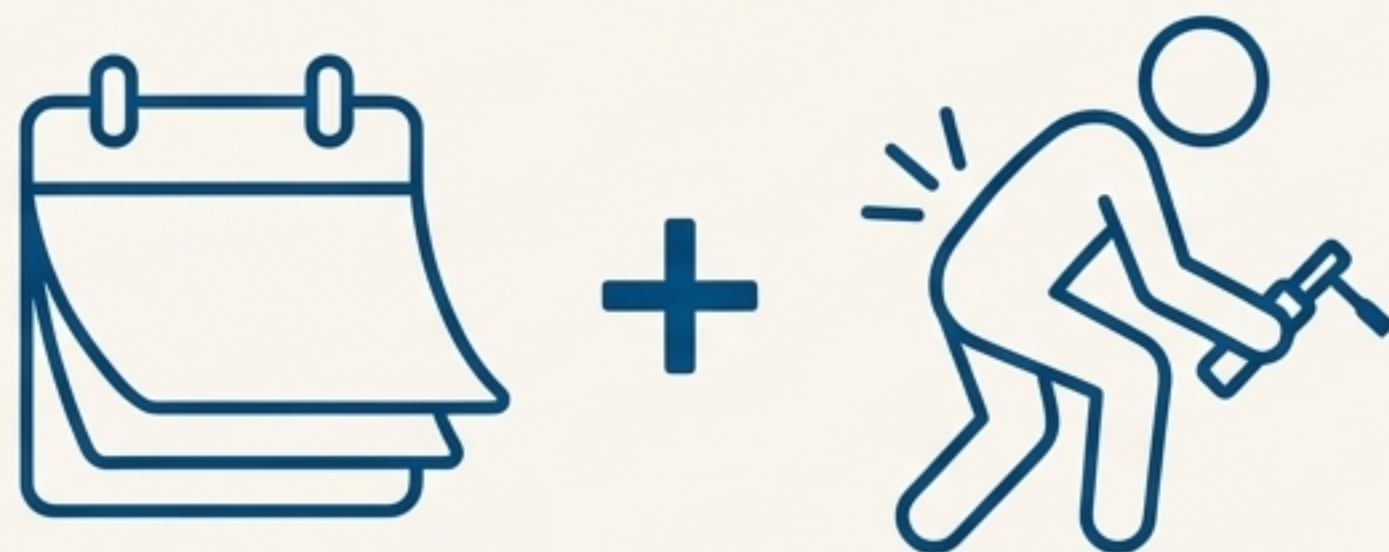
 장소

 행동

 결과

이렇게 쓰세요 ②: 오랜 기간 일해서 병을 얻은 경우

사고 날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근무 기간’과 ‘신체에 부담을 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좋은 예

1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함.
6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음.



목격자의 한마디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본 동료가 있다면,
그 진술이 산재 승인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신청서의 앞면과 뒷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로자 작성 (앞면)

재해 발생 경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작성



주치의 작성 (뒷면)

의학적 소견(초진소견서) 작성



의사에게 '산재 신청할 예정이니, 소견서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가장 큰 오해: '사장님 허락이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청을 망설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 사장님 허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도장이 필수였지만, 법이 바뀌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의
‘사업주 날인 미필 사유’란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성공적인 산재 신청을 위한 3가지 황금률

신청서 작성만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면 승인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1.



2.



3.



1. 'Golden Rule 1':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산재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Golden Rule 2':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세요.

일반 병원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재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정 병원'을 이용하면
서류 절차가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치료 시작부터 산재 절차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Golden Rule 3': 모든 내용은 정직하게 작성하세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에서 다친 것을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 이제 당신이 내디딜 차례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